

# 한국의 기회불평등 : 중장년을 중심으로

신광영 교수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요약문 .....	1
1. 문제제기 .....	2
2. 불평등 기제 .....	3
1) 조건, 기회와 결과의 불평등	
3. 본인 세대 불평등 .....	4
1) 소득 불평등	
2) 주택과 부채의 불평등	
(1) 주택	
(2) 부채	
3) 일자리 안정	
4. 미래 기회의 불평등 .....	10
1) 교육 투자와 교육 기회의 불평등	
2) 계층이동: 과거와 미래	
3) 지역 간 계층이동 격차	
4) 생활 만족도	
5. 결론 .....	18

# 한국의 기회 불평등: 중장년을 중심으로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 요약문

본 보고서는 한국의 중장년 세대(40-59세) 내의 기회불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불평등을 다룬다. 불평등은 조건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작용하는 불평등은 세 가지 불평등이 인과적으로 겹쳐져서 상호작용한다. 중장년 세대는 자신의 현재, 자신의 미래(노후)와 자녀의 미래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여러 가지 파급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먼저, 소득과 고용의 불평등을 다룬다. 소득은 직업과 고용상의 지위(정규직, 비정규직)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주택과 부채와 관련된 불평등을 다룬다. 주택은 재산의 의미로서 경제적 안전판 역할을 하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가 주택 소유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주택 소유와는 반대로 삶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관련되어 있으며, 가족 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가족 수가 많아질수록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불평등은 자녀 교육과 계층이동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격차가 대단히 크다. 또한 과거의 계층 이동과 비교해서 미래의 계층 이동은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자녀의 계층이동의 경우가 부모-본인 계층이동의 경우보다 3배~11배 정도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중소도시나 농촌보다 광역도시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가장 중요한 삶의 만족도 차이의 원인은 소득 수준의 차이로 나타났고, 공정한 보상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 1. 문제제기

20세기 후반 들어 한국의 불평등 심화 현상은 세계화와 더불어 나타난 새로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의 규제완화와 시장 개방이 시작되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더 극적으로 심화되어 사회양극화 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나타났다 (유경준, 2011; 신광영 2013).

불평등 논의는 주로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의 불평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획득 기회와 최종적인 소득의 격차와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기제에 대한 논의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학술적인 차원에서 불평등의 사회구조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논의는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기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중장년 세대(40-59세)의 불평등을 논의한다.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중장년은 경제활동이나 가족생활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3가지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과제는 가족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마련하고 일과 관련하여 현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피고용자인 경우에는 직장 내 승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 소득의 증가나 안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과제는 자녀의 교육을 충실하게 해서 자녀 세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의 준비이다. 중장년 시기는 생애과정의 단계에서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해야 하고, 자녀들이 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부모로서의 중장년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 교육과 훈련에 자원을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보살펴야 하는 학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시기이다.

셋째 과제는 소득이 없는 본인의 노후에 대비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퇴직 이후의 삶은 퇴직 전에 해 둔 저축이나 각종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통해서만 영위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복지제도가 아직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현실에서는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만큼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노인 빈곤율이 계속해서 높아져서 2015년에는 49.6%로 OECD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OECD 국가 평균 12.6%에 비해서 무려 4배 가까운 노인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OECD, 2016: 160).

생애과정에서 중장년의 과제는 어느 세대보다 더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과거의 기회와 역량의 축적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경로 의존인(path dependent)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중장년 이전 시기인 청년기에 주어진 기회의 결과에 따라서 중장년기 기회(승진)와 결과(소득 획득이나 부의 축적)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

평등한 사회는 과거가 현재를 결정짓는 정도가 낮은 사회이다. 과거 가정 배경이 현

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과거 아동기나 청년기의 환경이 그 이후의 삶의 내용을 결정짓는 정도가 낮아야 한다. 그리하여 공정한 경쟁과 그것에 따른 보상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불평등이 수준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제도의 정당성도 제고될 수 있다.

## 2. 불평등 기제

### 1) 조건, 기회와 결과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먼저 기회 평등(equal opportunity)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회 평등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공통적으로 희소한 지위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주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 상태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위나 소득을 얻은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Rawls 2001: 42-44). 대표적으로 가족 배경과 관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의 차이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경우,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한 차이는 자녀들의 선택이나 노력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차이라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한 차이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서 자신의 경제적 지위나 소득이 결정되는 것은 행위자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러한 견해는 운 상쇄 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라고 불린다(Cohen, 1989; Arneson, 1999; Dworkin, 2003; Rawls, 1971 and 2001; Roemer, 1998).<sup>1)</sup>

기회 불평등은 시간적으로 또한 공간적으로 복합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에 주어진 기회 중에서 선택한 것에 의해서 현재의 기회가 영향을 받는다면, 기회 평등의 실질적인 의미는 과거에 주어진 기회 자체가 우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기회의 불평등이 현재 기회의 불평등을 인과적으로 야기하는 경우, 기회 불평등의 연쇄 고리(chain of inequality of opportunity)가 작동하게 된다. 기회 불평등이 시간적으로 결과의 불평등을 낳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회의 불평등도 낳기 때문에, 기회 불평등은 대체로 구조적인 속성을 지니게 된다. 즉, 불평등이 일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인과적인 과정을 거쳐서 다른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통 과거의 불평등을 현재 기회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불평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전 이론가인 칼 맑스는 결과의 불평등인 부(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에 주목을 했고, 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적인 원인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기초한 계급 관계이며, 계

1) 부자집에 태어나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거나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연이라고 불리는 운에 따른 것이다. 개인의 삶이 우연에 의해서 지배되어서는 안되고,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보상이 결정되는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 운 상쇄 평등주의이다. 운에 의한 불평등을 상쇄하는 것을 강조하는 평등주의라는 의미이다. 신정완

급 간 착취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베버는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희소한 자원(재화나 기술 포함)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생활기회의 불평등”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불평등이라고 보았다(Weber, 1978: 302-307).

불평등을 다루는 현대 이론가들은 인정될 있는 불평등과 인정될 수 없는 불평등을 구분한다. 대표적으로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기회와 보상에 대한 전망인 “생활 전망(life-prospect)”의 불평등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유, 기회의 평등과 차등의 원칙(Maximin, 최소 수혜자의 최대 혜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awls, 2001: 42-43). 롤스는 자유 시장 체제가 공정한 불평등을 저절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인위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만 불공정한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한 불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유 시장 체제는 과도한 부의 집중에 따른 정치적 지배를 낳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awls, 2001: 44). 즉, 불평등은 공정한 불평등만으로 구성되는 조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기회의 불평등, 조건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대 사회는 각기 다른 많은 종류의 기회 불평등을 특징으로 한다. 게다가 이 기회들은 대부분 복잡한 방식으로 서로 겹치고/겹쳐지거나 상호작용한다" (Fishkin 2014: 15). 개인이 태어난 지역이나 가족 환경에 따라서 조건이 다를 수 있고, 그 차이에 의해서 개인들에 주어지는 기회(사교육, 대학 입학, 취업, 승진, 결혼 등)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초기적인 조건의 차이가 생애 과정의 어떤 단계에서 결과(소득, 주택 소유, 부채 등)의 불평등을 낳고, 그것이 본인의 기회(연금)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다양한 기회(교육, 결혼, 승진, 출산 등)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기회 불평등을 다룬다. 하나는 중장년 응답자 당사자들의 기회 불평등을 다룬다. 소득, 주택, 부채와 일자리 안정의 불평등이 본인의 교육 수준과 고용상의 지위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지를 분석한다. 다른 하나는 본인 세대의 불평등이 다음 세대인 자녀의 기회 불평등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3세대(부모-본인-자녀)의 주관적 계층이동을 분석하여 과거의 불평등이 미래 자녀 세대의 불평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동그라미재단의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 3. 본인 세대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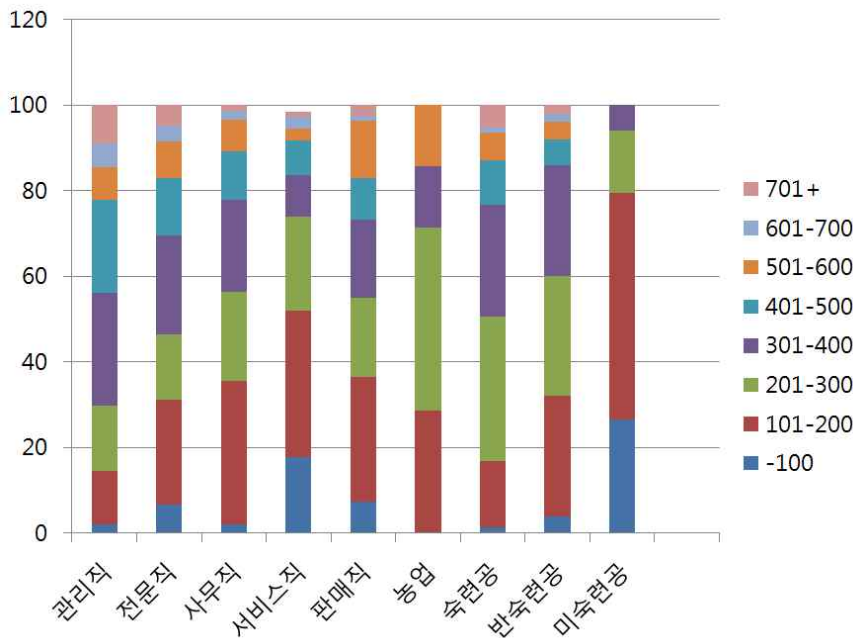
#### 1) 소득 불평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소득은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득불평등은 복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요인의 산물이다. 먼저 개인 소득은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분업체계인 계급지위에 따라서

국민 총생산은 이윤(자본가와 자영업자)과 임금(피고용자)으로 나뉜다. 자본가와 자영업자의 소득은 대체로 기업이나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피고용자들의 임금은 기업규모, 직업과 고용상의 지위(정규직, 비정규직), 학력과 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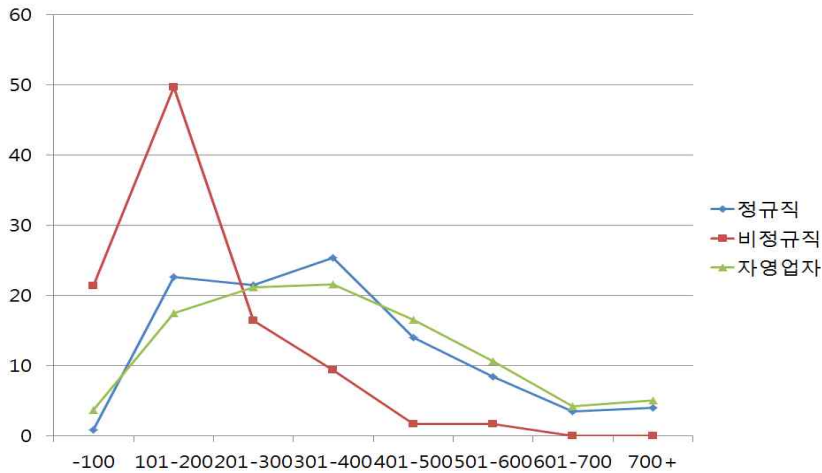
중장년 근로소득은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는가? 평균적으로 관리직 소득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고, 미숙련 노동자의 근로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관리직에서도 월 2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있고, 반숙련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2%가 월 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향은 직업에 따라서 근로소득의 분포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경우, 숙련 정도에 따른 근로소득의 분포가 뚜렷하게 차이를 보여, 월 3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비율은 숙련노동자의 55.88%, 반숙련 노동자의 60%, 미숙련 노동자의 94.12%이었다. 화이트 칼라의 경우에도 차이가 커서 서비스직에서 300만 원 이하가 78.98 정도를 차지했고, 사무직 56.31%, 관리직 29.78%, 전문직 46.24%이었다.

<그림 1> 직업에 따른 소득분포



고용상의 지위를 고려하면, 비정규직의 월 소득은 200만 원 이하로 집중되어 있다. <그림 2>는 비정규직 피고용자의 경우,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비율은 68.82%로 높게 나타나, 비정규직 3명 중 2명이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본가와 뿌띠부르주아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 대자본가는 서베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600만 원 이상의 월 소득자가 9.18%로 정규직의 7.33%에 비해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고용상의 지위에 따른 근로소득 분포



가구소득은 가구가 얻는 모든 소득을 합친 소득이다. 가구소득은 일차적으로 근로소득을 얻는 가구원 수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가구소득은 일과 관련하여 얻어지는 근로소득과 일과 무관하게 저축이나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그리고 정부나 가족으로부터 얻는 이전 소득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소득을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지만, 미취업자나 퇴직자들에게는 비근로 소득이 중요한 소득원이다.

<표1>은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의 분포를 보여준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월 101-200만원대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지만, 가구소득은 월 401-500만원대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어서 개인소득의 분포와 큰 차이를 보였다. 주된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가 전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약 56%에 달하기 때문에 개인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미취업 응답자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가구소득은 고소득 계층인 701만 원 이상으로 미취업 가구 3 가구 중 1가구가 고소득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분석 대상이 40-59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소득이 높은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서 2.5% 정도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근로를 하지 않고 고소득을 올리는 주식투자자와 임대를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건물 소유주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1 > 근로소득과 가구소득 분포

(단위: 명, %)

가구소득 근로소득	-100만원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1-600	601-700	701+	미취업	합계
-100만원	10명 19.23%	7 13.46	9 17.31	7 13.46	8 15.38	6 11.54	1 1.92	4 7.69	0 0.00	52 100.00
101-200		60 22.90	48 18.42	45 17.18	52 19.35	24 9.16	15 5.75	18 6.87	0 0.00	262 100.00
201-300			63 31.19	35 17.33	45 22.28	27 13.37	11 5.45	20 9.90	1 0.50	202 100.00
301-400				90 42.25	57 26.76	38 17.84	14 6.57	14 6.57	0 0.00	213 100.00

401-500					59 48.76	28 23.14	14 11.57	20 16.53	0 0.00	121 100.00
501-600						37 49.33	12 16.00	25 33.33	1 1.33	75 100.00
601-700							18 62.07	11 37.93	0 0.00	29 100.00
701+								34 100.00	0 0.00	34 100.00
미취업	40 11.94	44 9.85	48 14.33	63 18.61	56 16.72	42 12.54	15 4.48	35 33.33	1 1.33	335 100.00
합계	50 3.78	100 7.56	168 12.70	240 18.14	277 20.94	202 15.27	100 7.56	181 13.68	5 0.38	1,423 100.00

## 2) 주택과 부채의 불평등

### (1) 주택

재산은 소득보다 더 확실한 가족생활의 안전판이다. 소득이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척도지만, 재산은 사람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필요나 뜻하지 않은 사고나 사건으로 인한 소득 상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제적 자원이다. 저축이나 부동산 소유와 같은 보유 재산은 가구 수준에서의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Atkinson and Brandolini, 2103: 88-89). 또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생활의 어려움에서 용이하게 벗어날 수 있다. 더 나아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더 넓다.

재산의 중요한 요소로서 간주되는 것은 주택이다. 한국인에게 주택은 부동산으로 자산의 유지뿐만 아니라 증식의 수단으로 가장 선호되는 자산 형태이다. 본 조사에서 한국 중장년의 주택 소유는 63.53%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는 연령에 따라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40대 초반의 경우 자가 비율은 58.35%로 나타났고, 50대 후반의 경우는 69.98%로 자가 비율은 11.63%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중장년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저축과 용자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였기 때문에 주택 소유가 가족의 생활 안정을 가져다주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면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은 중장년의 비율은 22.99%로 나타났고,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높은 것을 나타냈다. 40-44세의 경우는 33.78%, 45-49세는 24.59%, 50-54세는 15.70%, 55-59세는 17.25%로 나타났다.



<표 2> 연령별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연령	주택 점유 형태				합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40-44	58.35	17.33	9.45	14.87	100.00
45-49	59.76	16.09	14.79	9.35	100.00
50-54	66.65	13.47	10.70	9.18	100.00
55-59	69.98	12.82	8.63	8.57	100.00

(2) 부채

경제적인 자원과 관련한 불평등은 부채와 관련된 불평등이다. 경제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가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채를 통해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부채는 상환 능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용이 보장된 사람들일수록 금융권으로부터 대부를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채가 반드시 생활상의 어려움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현재나 미래의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강한 제약을 주는 요소라는 점에서 불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표 3>은 가구소득과 가계부채의 교차표이다. <표 3>에 알 수 있듯이, 2016년 전체 가구의 54.72%가 월 가구소득의 6배가 넘는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의 절반이 넘는 부채는 상환하기가 쉽지 않은 부채라는 점에서 생활의 곤란함을 야기할 수 있는 부채라고 볼 수 있다. 200만 원 이하 저소득 계층의 경우, 가구소득 6배를 넘는 위험한 부채 비율은 54%로 절반을 넘고 있다. 201-300만원 가구소득의 경우는 72% 정도가 월 가구소득의 6배 이상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가구소득 수준별로 볼 때 가장 위험 부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 가구소득과 가계부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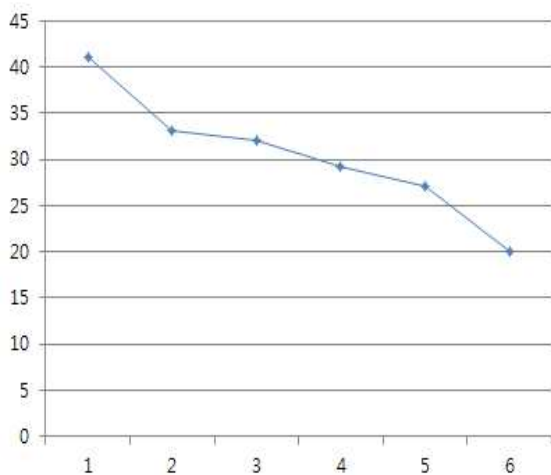
(단위: 명, %)

가구 소득	가계 부채										
	없음	-2,000	2,001-	4,001-	6,001-	8,000-	10,000-	15,000-	20,001+	잘 모름	합계
-100만원	24명 48.00%	9 18.00	5 10.00	3 2/54	1 2.00	0 0.0	2 4.00	1 2.00	1 2.00	0 0/00	50 100.00
	5.91%	4.43	3.07	0.23	1.27	0.00	2.38	1.96	1.23	0.00	3.78
101-200	43 43.00	22 22.00	14 14.00	4 4.00	6 6.00	3 3.00	3 3.00	0 0.00	5 5.00	2 2.00	100 100.00
	10.59	10.84	8.59	3.39	7.59	2.46	2.46	0.00	6.58	9.52	7.56
201-300	43 25.60	32 19.05	31 18.45	19 11.31	11 6.55	10 5.95	10 5.95	6 2.50	2 1.19	4 2.38	168 100.00
	10.59	15.76	19.02	16.10	13.92	11.90	8.20	11.76	2.63	19.05	12.70
301-400	78 32.92	47 19.58	35 14.58	16 6.67	17 7.08	19 7.92	12 5.00	6 2.50	4 1.67	5 2.08	240 100.00
	19.46	23.15	21.47	13.56	21.52	22.62	9.84	11.76	5.26	23.81	20.94

401-500	65	39	42	32	15	19	35	12	17	1	277
	23.47	14.08	15.16	11.55	5.42	6.86	12.64	4.33	6.14	0.36	100.00
	16.01	11.33	25.77	27.12	18.99	22.62	27	23.53	22.37	4.76	15.27
501-600	62	23	14	19	11	20	21	45	18	3	202
	30.69	11.39	6.93	9.41	5.45	9.90	10.40	21.57	8.91	1.49	100.00
	15.27	11.33	8.59	16.10	13.92	23.81	17.21	0.83	23.68	14.29	7.56
601-700	26	12	11	10	10	4	17	4	6	0	100
	26.00	12.00	11.00	10.00	10.00	4.00	17.00	4.00	6.00	0.00	100.00
	6.40	5.91	6.75	8.47	12.66	4.76	13.93	7.84	7.89	0.00	7.56
701+	61	19	11	15	8	9	23	11	23	1.	181
	33.70	10.50	6.08	8.29	4.42	4.97	12.71	6.08	12.71	0.55	100.00
	15.02	9.36	6.75	12.71	10.13	10.71	18.85	21.57	30.26	4.76	13.68
잘 모름	3	0	0	0	0	0	1	0	1	0	5
	60.00	0.00	0.00	0.00	0.00	0.00	20.00	0.00	0.55	0.00	100.00
	0.74	0.00	0.00	0.00	0.00	0.00	0.82	0.00	4.76	0.00	0.38
합계	406	203	165	118	79	84	122	51	76	21	1,323
	30.69	15.34	12.32	8.92	5.97	6.35	9.22	3.85	5.74	1.59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부채는 직업이나 연령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고, 단지 혼인 상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인 경우 부채 비율이 51.68%로 가장 낮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부채 비율이 71.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의 경우는 69.35%로 나타나, 결혼 상태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상환 능력뿐만 아니라 부채를 통한 금융자원의 동원이 가족 규모가 큰 경우에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결혼 생활이 부채가 동반되는 경우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결혼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최근 세대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그림 3> 가구원 수별 부채 없음의 비율 (단위: %, 명)



### 3) 일자리 안정

중장년 세대는 한편으로 가족생활과 자신의 노후 준비와 자녀의 장래를 위한 교육 투자로 인하여 소득을 일정 수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여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안정된 일자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표 4>는 연령별 실직 위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40-44세가 다른 연령 세대보다 가장 실직의 위험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55-59세 가운데 실직의 위험을 느끼는 비율이 31.78%이었고, 50-54세가 34.60%, 45-49세가 36.03%, 40-44세가 38.05%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장년보다 중년에서 실직의 위험이 크다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은 실직에 대한 불안이 40대 초반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5-59세 경우는 이미 퇴직을 준비한 세대이기 때문에, 실직에 대한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직과 실직 후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의 40-44세 연령대 남성이라고 볼 수 있다. 퇴직 시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직의 위험은 젊은 세대에서 더 크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표 4> 연령별 실직 위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단위: %)

연령	실직 위험 주관적 평가					합계
	매우 심하게	약간 심하게	보통	별로 없음	전혀 없음	
40-44	7.25	30.80	31.16	25.00	5.80	100.00 (276명)
45-49	8.05	27.97	32.18	21.46	10.34	100.00 (261)
50-54	10.13	24.47	29.96	24.89	10.55	100.00 (237)
55-59	10.28	21.50	25.70	24.77	17.76	100.00 (214)
합계	8.81	26.52	29.96	23.99	10.73	100.00 (988)

## 4. 미래 기회의 불평등

### 1) 교육 투자와 교육 기회의 불평등

경제활동과 소비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또한 투자를 한다. 취업과 직업 활동이 교육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래 자녀들의 삶을 잘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재산을 물려주거나 혹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 교

육을 통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시키고자 한다. 교육에 대한 지출은 자녀 교육을 통한 미래의 준비 정도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연령대인 40대의 경우, 자녀 교육비 지출은 미래의 다양한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50대의 경우,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차이로 인하여 교육비 지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녀 교육비 지출 수준이 기회의 평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40대의 경우 자녀 교육비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교육비 지출은 60만 원 이하가 71.62%로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1-6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녀 교육비가 90만 원 이상인 경우는 59.14%였으며, 601만 원 이상인 경우는 63.9%로 대단히 높았다.

<표 5> 가구소득과 자녀 교육비 교차표

(단위: 만원, %)

교육비 가구소득	-30만원	31-60	61-90	91-120	121+	합계
- 200만원	32.15a 54.00b	39.47 14.10	8.37 3.25	11.72 14.24	8.29 14.42	100.00
200-300	24.45 40.86	29.09 8.67	16.72 6.04	14.75 20.75	14.99 23.68	100.00
201-400	29.74 34.34	22.73 19.00	15.50 1.85	13.50 19.04	18.53 25.77	100.00
401-500	17.86 32.66	20.07 8.17	12.08 2.48	26.16 28.02	23.83 28.67	100.00
501-600	13.70 28.63	18.77 9.08	8.39 7.78	22.27 16.54	36.87 37.96	100.00
601+	11.03 36.76	15.53 5.74	9.54 5.02	18.26 19.97	45.64 32.51	100.00
합계	17.17 36.54	21.20 10.34	11.78 4.29	19.41 20.43	28.44 28.41	100.00 100.00

참고) a는 40대의 응답 비율이며, b는 50대의 응답 비율이다.

<표 6>는 연령을 더 세분하여 가구소득과 자녀 교육비 지출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별 Chi-square 분석을 시도하였다. 가구소득과 자녀 교육비가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연령대는 45-49세로 자녀들이 대부분 고등학생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50대 전반기에도 가구소득과 자녀 교육비 지출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여, 40대 초반보다 더 많은 교육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49세의 경우, 피어슨 콰이 제곱 값은 51.2121로 40대 초반의 경우 32.9049보다 가구소득과 자녀 교육비와의 연관성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가구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 교육비 지출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부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심해지다가, 50대 초반에 들어서 약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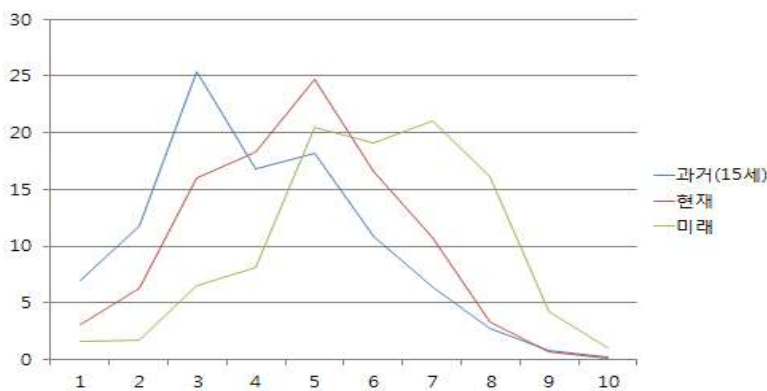
<표 6> 연령 세대별 가구소득과 자녀 교육비 지출과의 관계

연령	Pearson Chi-square	유의수준
40-44	32.9049	.035*
45-49	51.2121	.000***
50-54	45.0217	.001**
55-59	26.9853	.136

## 2) 계층이동: 과거와 미래

한국의 중장년은 과거와 미래의 계층구조와 계층이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과거, 현재와 미래의 계층 구조는 10분위 소득계층에서 부모 세대, 본인 세대와 자녀 세대의 10분위 소득계층 내의 위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구성할 수 있다. <그림 4>는 세대 간 소득 계층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4>에서 과거, 현재와 미래 순으로 소득계층 분포가 우측으로 이동하여 과거 소득분위가 상승해왔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 세대 간 소득 계층의 분포 (단위: %, 소득분위)



그렇다면, 소득계층 간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것인가? 계층이동의 계층별 차이의 추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기회의 불평등의 추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질문들이다. 소득계층이 상승하더라도 다른 소득계층 출신보다 상승하는 정도가 적거나 힘들다면, 소득계층 간 격차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세대 간 계층이동의 경험과 미래 세대 간 계층이동의 희망은 한국 사회를 움직여 온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가족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투자는 한편으로 유일한 상승이동의 기회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현실적인 조건과 다른 한편으로 확대되는 교육 기회를 이용하기 위한 이해가 맞물리면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보여주었다.

<표 7>와 <표 8>는 응답자 부모 세대에서 응답자 세대에 걸친 주관적인 계층이동 교차표이다. 여기에서 주관적인 계층은 주관적으로 부모의 계층과 본인의 계층을 최하층 1에서 최상층 10까지의 계층 서열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한 계층이다. 여기에서 1부터 10까지의 계층 서열을 1~3은 하층, 4~7은 중층, 8~10은 상층으로 다시 3개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횡과 열의 주변분포는 부모의 세대에 비해서 본인 세대에 중간 소득층이 크게 늘었다. 부모 세대의 경우, 중간소득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52.08%이었지만, 본인 세대의 경우, 중간 소득층 비율은 70.45%였다.

<표 7> 부모-본인 계층이동에 대한 주관적 평가

본인의 계층 부모의 계층	하	중	상	합계
하	217명 (37.09%, 64.39%)	352 (60.17, 37.77)	16 (2.74, 29.63)	585 (100.00, 44.22)
중	105 (15.24, 31.16)	552 (80.12, 59.23)	32 (4.64, 59.26)	689 (100.00, 52.08)
상	15 (30.61, 4.45)	28 (57.14, 3.00)	6 (12.24, 11.11)	49 (100.00, 3.70)
합계	337 (25.47, 100.00)	932 (70.45, 100.00)	54 (4.08, 100.00)	1,323 (100.00, 100.00)

참고) 좌측 괄호안의 수치는 횡의 퍼센트를 지칭하며, 우측 괄호안의 수치는 열의 퍼센트를 지칭한다

<표 8> 본인-자녀 계층이동에 대한 주관적 전망

자녀의 계층 본인의 계층	하	중	상	합계
하	100명 (29.67% 77.52%)	206 (61.13, 22.64)	31 (9.20, 0.92)	337 (100.00, 10.92)
중	27 (2.90, 20.93)	689 (73.93, 75.71)	216 (23.18, 76.06)	932 (100.00, 70.45)
상	2 (3.70, 1.55)	15 (27.78, 1.65)	37 (68.51, 13.03)	54 (100.00, 4.08)
합계	129 (9.75, 100.00)	910 (68.78, 100.00)	284 (21.47, 100.00)	1,323 (100.00, 100.00)

참고) 좌측 괄호안의 수치는 횡의 퍼센트를 지칭하며, 우측 괄호안의 수치는 열의 퍼센트를 지칭한다

<표 9>은 주변분포(marginal distribution)를 고려한 후, 3세대에 걸쳐서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출신 계층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승산비(odds ratio)<sup>2)</sup>이다. 첫 번째 열은 부모와 본인의 계층 이동의 승산비를 보여준다. 첫 번째 항은

2) 승산비(odds ratio)는 두 가지의 승산(odds)을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층, 중층과 하층의 숫자를 남자의 경우, 각각 A(남), B(남), C(남)라고 하고, 여성의 경우, 각각 A(여), B(여), C(여)라고 하면, 남성이 중층 대신에 상층이 될 승산은 A(남)/B(남)이 된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도 동일하게 A

하층 부모의 자녀가 중층 대신에 하층이 되는 승산이 중산층 부모의 자녀가 중층 대신에 하층이 될 승산과 비율이다. 부모의 계층과 무관하게 비교가 되는 계층에 속할 승산에서 차이가, 각 항의 수치는 1이 될 것이다. 1에서 멀어질수록 부모에 계층에 따른 본인의 계층 승산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층 부모를 둔 중장년 세대가 중층 대신 하층이 될 승산은 중층 부모를 둔 중장년 세대보다 3.240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층보다 하층이 될 승산은 4.133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장년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부모 계층에 따라서 자신들의 계층도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층이나 상층보다 더 안정적인 계층은 중층으로 중층은 하층과 비교해서도 또한 상층과 비교해서도 중층이 될 승산을 더 크게 가지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중층 부모를 둔 중장년 가운데 중층보다 하층이 된 경우는 상층 부모를 둔 중장년 가운데 중층보다 하층이 될 승산의 1/3정도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중층을 소득분위 30%와 소득분위 70% 사이의 40%로 정의한 것에 따른 통계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간 소득을 중심으로 중층을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중층 조작화(operationalization)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계층이동의 출신 계층 간 차이는 미래 세대에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9>의 두 번째 열은 본인과 자녀 세대 간 기대되는 미래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이다.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의 승산비 비교를 통해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이동의 과거와 미래의 추세를 비교할 수 있다. 미래 계층이동이 훨씬 더 개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두 번째 열의 승산비가 첫 번째 열의 승산비에 비해서 1에 더 가까워 질 것이다. 반면에, 계층이동이 더 어려워진다고 인식한다면, 두 번째 열의 승산비가 첫 번째 열보다 1에서 더 크게 멀어질 것이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번째 열의 승산비는 첫 번째 열의 승산비에 비해서 3배~11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래의 계층이동이 과거의 계층이동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하층 부모의 자녀들이 상층 대신에 하층이 될 승산은 상층 부모의 자녀들이 상층 대신 하층이 될 승산의 11배에 달하여 하층과 상층 간의 계층이동의 격차가 극심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층에서 계층을 유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하층과 중층 그리고 중층과 상층의 격차도 커져서 계층 간 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적으로 요즈음 등장한 흑수적-금수저” 담론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

(여성)/B(여성)가 된다. 남성의 승산과 여성의 승산을 비교하면, 승산비가 된다. 이는 여성 승산비를 남성 승산비로 나눈 것으로 승산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중층보다 상층이 될 남녀 승산의 비(odds ratio)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frac{\text{여성 승산}}{\text{남성 승산}} = \frac{A(\text{여})/B(\text{여})}{A(\text{남})/B(\text{남})}$ . 만약 이 값이 1이면, 여성의 승산과 남성의 승산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1보다 작으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경우가 중층 대신에 상층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그 값이 1보다 크면, 중층 대신에 상층이 될 승산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에서 벗어날수록 비교하는 대상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표 9> 3 세대 간 주관적 계층이동 승산비

		부모- 본인(1세대-2세대)	본인-자녀(2세대-3세대)
하층 대 중층	하층 대 중층	3.2409	12.3876
하층 대 중층	중층 대 상층	1.2753	2.0832
하층 대 중층	하층 대 상층	4.1333	25.8065
중층 대 상층	하층 대 중층	0.3551	0.2939
중층 대 상층	중층 대 상층	3.6964	7.8682
중층 대 상층	하층 대 상층	1.3125	0.4324
하층 대 상층	하층 대 중층	1.1506	3.6408
하층 대 상층	중층 대 상층	4.7143	16.3914
하층 대 상층	하층 대 상층	5.4250	59.6800

### 3) 지역 간 계층이동 격차

과거 사회계층 이동에 대한 경험과 미래 사회계층 이동에 대한 전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한 차이는 응답자의 현재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장년 응답자를 대상으로 부모와 본인 간의 계층이동과 본인과 자녀 간의 계층이동을 광역시와 비광역시(중소도시 및 농촌)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과거 부모 세대와 본인 세대의 계층이동에서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향후 미래에는 비광역시보다 광역시에서의 계층이동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하였다. 광역시 거주 중장년 세대의 경우, 부모의 계층과 본인의 계층 간에 연관성이 높지만, 계층이동이 많이 이루어졌다. <표 10>에서 피어슨 콰이제곱으로 측정되는 부모 계층과 본인 계층의 연관성 정도는 광역시 거주자들의 경우(40.0530)가 중소도시와 농촌 거주자들의 경우(52.6936)보다 더 낮았다. 이것은 부모세대와 본인세대 계층이동에서 농촌보다 도시가 더 용이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향후 본인과 자녀 간의 계층이동에 대한 응답에서는 연관성이 크게 증가하여 광역시 거주자들의 경우 피어슨 콰이제곱이 157.0640으로 4배 정도 더 커졌고, 중소도시와 농촌 거주자들의 경우도 130.2676으로 높아졌지만, 이 경우에는 광역도시 거주자보다는 세대 간 계급의 연관성이 낮았다. 이것은 과거 대도시가 계층이동의 중요한 공간으로 기능하였지만, 중소도시보다 계층 고착화 정도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0> 부모-본인 계층이동 (광역시)

본인 계층 부모 계층	하	중	상	합계
하	98명 (39.20% 61.25%)	144 (57.60, 35.47)	8 (3.20 25.81)	250 (100.00 41.88)
중	56 (17.45 35.00)	246 (76.64 60.59)	19 (5.92 61.29)	321 (100.00 53.77)
상	6 (23.08 8,75)	16 (61.54 3.94)	4 (15.36 4.36)	26 (100.00 4.36)
합계	160 (26.80 100.00)	406 (68.01 100.00)	31 (5.19 100.00)	597 (100.00 100.00)

Pearson chi2(4) = 40.0530 Pr = 0.000

<표 11> 본인-자녀 계층이동(광역시)

자녀 계층 본인 계층	하	중	상	합계
하	49 (30.63 76.56)	99 (61.88 25.00)	12 (7.50 8.76)	160 (100.00 26.80)
중	14 (3.45 21.88)	292 (71.92 73.74)	100 (24.63 72.99_)	406 (100.00 68.01)
상	1 (3.23 1.56)	5 (16.13 1.26)	25 (80.65 18.25)	31 (100.00 5.19)
합계	64 (10.72 100.00)	396 (66.33 100.00)	137 (22.95 100.00)	597 (100.00 100.00)

Pearson chi2(4) = 157.0640 Pr = 0.000

<표 12> 부모-본인 계층이동(비광역시)

본인 계급 부모 계급	하	중	상	합계
하	119 (35.52 67.23)	206 (62.09 39.54)	13 (2.99 34.78)	335 (100.00 46.14)
중	49 (13.92 27.68)	308 (83.15 58.17)	13 (3.53 56.52)	368 (100.00 50.69)
상	9 (39.13 5.08)	12 (52.17 2.28)	23 (8.70 8.70)	23 (100.00 3.17)
합계	177 (24.38 100.00)	526 (72.45 100.00)	23 (3.17 100.00)	726 (100.00 100.00)

Pearson chi2(4) = 52.6936 Pr = 0.000

<표 13> 본인-자녀 계층이동 (비광역시)

자녀 계층 본인 계층	하	중	상	합계
하	51 (28.81 78.46)	107 (60.45 20.82)	19 (10.73 12.93)	177 (100.00 24.38)
중	13 (2.47 20.00)	397 (75.48 77.24)	116 (22.05 78.91)	526 (100.00 72.45)
상	1 (4.35 1.54)	10 (43.48 1.95)	12 (52.17 8.16)	23 (100.00 3.17)
합계	65 (8.95 100.00)	514 (70.80 100.00)	147 (20.25 100.00)	726 (100.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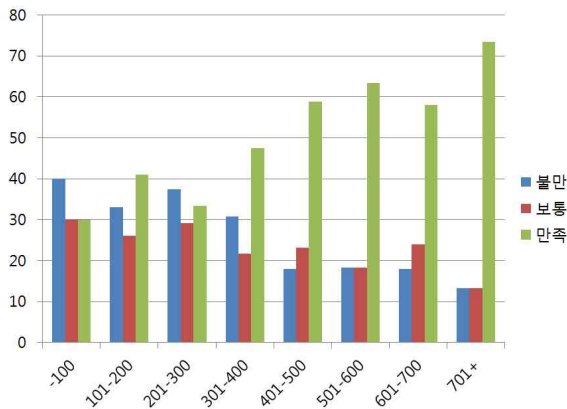
Pearson  $\chi^2(4) = 130.2676$  Pr = 0.000

#### 4) 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자원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가족관계의 질이나 정치적인 환경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자원의 불평등이나 기회의 불평등과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통해서 기회의 불평등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그림 5>는 소득계층별 삶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그림 5>에서 두드러진 점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대단히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월소득 100원 미만 중장년에서 생활에 대한 불만 비율이 40%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701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서 생활에 대한 불만 비율은 13.26%로 매우 낮았다. 또한 만족도의 경우도, 최저 소득계층인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경우 생활 만족도는 33.33%로 701만 원 고소득 계층의 73.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소득이 개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소득계층별 삶의 만족도 (단위: %, 만원)



그렇다면, 기회의 불평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표 14>은 “나는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과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공정한 대우 평가와 삶의 만족도의 교차표를 분석한 것이다. 노력한 만큼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30.77%이었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30.16%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기회불평등이 삶의 만족도와 얼마나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가? <표 14>은 대단히 체계적으로 공정한 대우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는 비율이 79.17%에 달하였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생활 불만족 비율은 26.42%에 불과하였다.

<표 14> 공정한 대우에 대한 평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교차표

(단위: %, 명)

공정한 대우	삶의 만족도			합계
	불만족	보통	만족	
(1) 매우 그렇다	6.25%	14.58%	79.17%	100.00 (43명)
(2) 그렇다	15.33	15.71	68.97	100.00 (261)
(3) 보통이다	20.73	27.82	51.44	100.00 (381)
(4) 별로 그렇지 않다	37.14	18.37	44.49	100.00 (245)
(5) 전혀 그렇지 않다	47.17	26.42	26.42	100.00 (53)
합계	24.09 (238명)	21.56 (213)	54.35 (547)	100.00 (988)

노력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지만, 공정한 대우와 삶의 만족도는 어느 것이 다른 것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노력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성공했다고 자신이나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사람일수록, 노력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삶의 만족도도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노력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주어지는 경우, 삶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대우는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5. 결론

본 보고서는 한국 중장년 세대의 기회 불평등을 서베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생애과정에서 중장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현재 본인의 경제활동, 미래 자신의 노후 준비와 미래 세대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러한 세 가지 복합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의 중장년은 어느 세대보다 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소득 불평등은 주로 직업과 고용상의(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가구소득은 부부의 경제활동 방식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가 늘어나면서, 개인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주택 불평등은 연령 세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가 비율이 높아졌다. 이것은 공공주택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주택은 거주공간이자 투자대상이라는 이중적인 인식 때문에 중장년 세대 내에서 자가의 비율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주택 구매나 임차할 때, 부모가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쉽게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집을 구할 때, 부모가 도와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불평등 체제 내에서 이동할 수 있기 기회가 확산되고 또 사회이동으로 현실화된다면, 불평등 체제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기회 불평등이 보장된다면, 결과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계층이동의 가능성은 현재의 계층에 따라서 매우 다르며, 과거보다 미래에서 계층이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세대 계층이동은 본인과 미래 자녀들의 계층이동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계층이동을 계층별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면, 부모-본인 간의 계층이동보다 본인-자녀 세대의 계층이동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불평등의 결과는 삶의 만족도 불평등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의 경우 삶의 만족도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나타났다.

## 참고문헌

- 신광영. 2013.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후마니타스.
- 유경준. 2012.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KDI Focus 통권 15호, 1-8.
- Arneson, Richard. 1989. “Equality and Equal Opportunity for Welfare,” *Philosophical Studies* 56, pp. 77-93.
- \_\_\_\_\_, 1999, “Egalitarianism and Responsibility” , *Journal of Ethics* 3: 225-247
- Atkinson Anthony B. and Francois Bourguignon. 2015.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Amsterdam: North-Holland.
- Cohen, G. A. 1989. "On the currency of egalitarian justice" *Ethics* 99: 906-944.
- Fishkin, Joseph. 2014. *Bottlenecks: A new theory of equal opportun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유강은 역, <병목사회: 기회의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대안>, 문예출판사).
- Marx, Karl. 2015[1867].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I*, London: Penguin Books.
- OECD, 2016.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 Paris: OECD.
- Rawls, John.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Justice As Fairness*, ed. by Erin Kelly, Harvard: Harvard University Press.
- Roemer, John. 1998. *Equality of Opportun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Roemer, John and Alain Trannoy. 2015. "Equality of Opportunity"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2A ed. by Anthony B. Atkinson and Francois Bourguignon, Amsterdam: North-Holland, pp. 217-300.
- Weber, Max. 1978[1922]. *Economy and Society I*, 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Press.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리포트를 무단전재 및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